

# 국내 특수 도서관에서의 원문제공과 상호대차 서비스 및 정보기술의 활용 현황\*

## Status of Document Delivery, Interlibrary Loan Services and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Korean Special Libraries

이 해 영(Hae-young Rieh)\*\*

### 목 차

- |               |                  |
|---------------|------------------|
| 1. 서론         | 4. 분석 결과         |
| 1. 1 연구의 배경   | 4. 1 응답 도서관의 배경  |
| 1. 2 연구의 목적   | 4. 2 원문제공 서비스 현황 |
| 1. 3 연구의 제한점  | 4. 3 상호대차 서비스 현황 |
| 2. 선행 연구      | 4. 4 정보기술의 이용    |
| 3. 연구 방법 및 절차 | 5. 결론 및 제언       |

### 초 록

국내 특수도서관들의 원문 제공 서비스 및 상호대차 서비스의 현황을 조사하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보기술의 활용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 도서관 통계 1994·1995」(1996)에 수록된 전문·특수 도서관 중 1인 이상의 사서가 근무하는 전국의 328개 도서관에 설문지들을 발송하였다. 회수율은 46.6%였고, 152매가 분석되었다. 원문 제공에 있어서, BLDSC를 61.3%, KINITI를 47.5%가 이용하고 있었다. 상호대차에 참여하고 있는 곳이 87곳(57.2%)이고, 사용신청에는 FAX와 전화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원문을 제공받는데는 FAX와 복사를 가장 많이 이용했다. 45%-75%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E-mail 등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정보 기술의 이용은 예산의 정도와 관계가 있었다. 원문제공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비용, 예산 문제, 원문을 받는데 신속성이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원문제공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협력창구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상호대차와 원문 신청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의 설립이 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ABSTRACT

To find out the status of document delivery and interlibrary loan services and th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special libraries, questionnaires were sent to 328 special libraries nationwide with at least 1 librarian, listed in *the Korean Libraries Statistics 1994·1995*(1996). 46.6% were returned and 152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For document delivery, 61.3% use BLDSC, 47.5% use KINITI. 87 libraries (57.2%) participate in interlibrary loan activities. To send requests, FAX and telephone is used the most, while FAX and print copy is used the most to receive the requested documents. 45-75% use various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ing online databases, Internet, e-mail, etc., and th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was related to the budget of the libraries. The costs, budgets, and slowness was the problems raised by the most. To improve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s, the most urgent thing is establishing cooperative system using BBS or Internet. Network systems to facilitate interlibrary loan should be established ultimately.

\* 본 연구는 명지대학교 1997년도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명지대학교 교양 조교수  
접수일자 1997년 8월 8일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최근 들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CD-ROM, 인터넷 등 각종 정보 검색 도구의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각종 서지 정보에 쉽게 접하게 되었다. 그 중에는 원문을 바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들도 있지만, 도서관들이 제공하는 CD-ROM이나 상업용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아직도 서지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주로 많고, 원문 데이터베이스는 한정이 되어 있으며, 가격도 비싸거나 접근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다양한 검색도구를 통해 서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검색 결과 얻게되는 서지 정보중에서 적합한 자료의 원문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증가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도서관들은 더 많은 정보요구를 가진 이용자들을 맞게될 것이다.

사실상 도서관 자체의 자료만으로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도서관들 간의 협력은 필수적인 일이며, 이를 위해 각종 협력 방안들이 제시되었고 시도되어 왔다. 상호대차는 공동수서 및 협동 목록 등의 방법과 함께 도서관 협력 활동의 중심이 되어왔으며, 정보기술의 발달로 도서관들간의 네트워크가 이를 위한 진보된 방안으로 등장하였다.

현재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원문 제공을 위해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서관간의 상호대차 서비스나, FAX 및 인터넷을 통한 원문 제공 서비스 등 다양하고 진보된 서비스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다. 미국은 OCLC 등 서지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상호대차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영국의 BLDSC(British Library Document Supply Centre)는 세계의 원문 제공 서비스 센터로 자리를 잡아왔다.

국내에서는 상호대차 제도나 원문 제공 서비스도 미비하고,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서비스도 활발하지않아, 원문 제공 서비스가 외국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에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 자료 이용 및 상호대차에 관한 협정」이 채택되었고, 「상호대차협정 시행 세칙」이 제정되었으며(전명숙 1986, 42), 같은 해부터 의학 도서관 협의회에 가입한 전국의 의학 도서관들이 상호간의 자료이용 및 상호대차를 중심으로 관련 규약을 제정하여 협력활동을 하여 「의학관계 잡지 종합목록」을 발간하고 있다. 도서관 정보관리편람(1994, 163, 900-904)에 의하면, 또, 같은 해 한국 과학 기술 정보센터(KORSTIC)에서 발간한 「외국 과학기술 잡지 종합목록」을 시작으로 상호대차 업무에 필요한 서지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으며(현재는 산업기술 정보원(KINITI) 발간으로, 1995년 자연과학 분야 목록에 253개 도서관의 잡지 목록 포함), 과학단지내 연구기관들은 연구단지 정보관리 협의회를 발족해 「과학

단지장서 종합목록」을 1972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했고, 1986년부터는 과학기술처의 지원 하에 한국 과학 기술원이 추진해온 과학기술 종합도서관 설립 계획의 일환으로 연구도서관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 사회과학 정보자료 기관 협의회가 1990년 발족되어, 1996년 현재 47개 기관이 가입되어 상호대차 등 협력 활동을 하고 있고, 학술진흥재단에서도 「외국 학술잡지 종합목록」을 발간하는데, 1996년판은 179개 도서관 소장 잡지를 수록하여 상호대차자료로 유용하게 쓰이도록 하고 있다. 국립 중앙도서관은 「외국도서종합목록」을 발간하였는데, 1996년판에 134개 도서관의 목록을 수록했으나, 이는 더 발행되지 않을 예정이라 한다.

하지만, 실제 상호대차나 원문 제공 서비스가 국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얼마나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 발표된 적이 없었다. 특히 특수 도서관들은 이용자들의 정보요구가 급한 것이거나 특수한 것이 많아 그만큼 원문제공 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수 도서관들은 광범위한 분야의 자료/도서를 소장하지는 않아도 모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세분화, 전문화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Cornish(1993)도 특수 도서관들은 상호대차시 전문화된 특정분야의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상호대차 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하면, 특수 도서관들은 타종 도서관들에 자료를 제공

해주는 일이 빌리는 일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인력이 많지 않은 특수 도서관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시간 등의 투자를 하기 어렵고, 비용을 부과하더라도 회계 등에 투입할 인력이나 여건등이 부족하며, 특수 도서관 이용자들의 즉각적인 정보 제공 필요성 등으로 관외 대출을 꺼리게 되는 일이 많아, OCLC 등의 네트워크에서 탈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국내 특수 도서관도 상호대차를 통한 협력에서 의학도서관 협의회 등을 통해 도서관 협력을 주도해왔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러한 서비스 현황에 관한 연구가 없었던 만큼, 현재 국내 도서관의 서비스 실태를 파악해 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꼭 필요한 일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특수 도서관들의 원문 제공 서비스 및 상호대차 서비스의 현황을 조사하고, 정보검색과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정보기술 활용도 및 그 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설문지를 보낸 특수 도서관들은 「한국 도서관 통계 1994·1995」(1996, 한국 도서관 협회)에 수록된 전문·특수 도서관들로서, 특수 도서관은 「도서관·정보학 용어 사전」(1983, 한국 도서관 협회)에 의하면, “개인 기업체, 협회, 정부기관, 기타 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나 정보센터 또는 한 도서관내에서 전문 분야의 장서를 갖춘 부서”이며, 전문 도서관은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는데 필

요한 전문 자료와 시설을 갖춘 도서관”으로 정의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특수 도서관이라 한다.

한편 원문 제공(Document Delivery)은 상호대차도 그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광범위한 의미의 정보 제공 서비스이다. 여기서 원문 제공은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정 서지 정보가 지시하는 원 문헌을, 도서관에서 타기관에 요청하고 공급받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을 지칭하였고, 상호 대차는 도서관 들간에 상호 협약에 의해 서로 실비 혹은 무상으로 도서를 빌려 주고 받거나 논문, 기사 등을 복사하여, 우편이나 FAX 등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칭하였다.

편의상 여기서는 원문 제공 서비스와 상호대차 서비스를 구분하여 현황을 파악 하였으나, 상호대차 서비스가 원문 제공 서비스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1.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현재 특수 도서관들이 어떤 방법으로 원문 제공을 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2. 각각의 방법을 통하여 원문 신청에서 입수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과 비용은 얼마인지 알아본다.
3. 특정 도서관이 상호대차에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하는 협력체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4. 상호대차의 이용 빈도는 얼마인지, 원문에 대한 신청 방법과 원문을 제공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5. 원문 제공 서비스와 상호대차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6. 특수 도서관들이 현재 정보기술을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의 활용 계획도 알아본다.
7. 도서관들의 예산의 차이가 정보 기술 활용 및 직원들의 교육을 위한 세미나 등에의 참여 빈도수와 상관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다.
8. 국내 특수 도서관에서 원문 제공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정보기술을 파악하고 그 활용 방안을 찾아본다.

## 1.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설문지를 보내는데는, 96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행된 「한국 도서관 통계 1994·1995」를 사용했는데, 주소가 변경되어서 반송된 설문지가 약 10여건에 이르렀다. 설문지가 실제 도서관으로 전달되지 못했을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회수율이 46.6%에 그쳤고, 정보기술의 이용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는 질문의 의도가 잘 전달되지 못해서인지 무응답 기관이 많아서, 실제 질문에 예, 아니오 등으로 응답한 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일부 응답 비율을 산정하였는 바, 이러한 사유들 때문에 전체 모집단의 특

성이 균형있게 나타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 2. 선행연구

국내에서는 먼저 전북대학교 의학 도서관의 상호대차서비스의 실태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조수현, 1989), 이승하(1989)는 한국과 해외 의학도서관들의 상호대차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영자(1995)는 정보 기술이 자원 공유에 대해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네트워크가 자원 공유를 위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자원의 공유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봉사를 제공하는 방법일 것이라 했고, 기술의 적용은 최종 이용자가 직접 다양한 정보원에 쉽게 접근해 일차 문헌을 전송받을 수 있는 방법의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 했다. 한편, 정연호, 김성혁(1994)은 초고속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의 개념 모델을 제안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특히 인터넷에 관련된 논문 및 기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즉 강숙희(1995), 금교석(1995), 김선화(1995), 안현주(1995), 정은희(1995), 홍재현·김병주(1995) 등의 연구는 인터넷의 정보제공기능을 중심으로 인터넷의 역사, 현황, 개요 및 탐색도구, 그리고 정보봉사에의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정영미(1995)는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자원들과 도서관 OPAC들을 살펴봄으로써, 정보망으로서의 인터넷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이상렬, 이은철(1995)은 인터넷 이용자들을 분석하여 이용목적, 이용상의 문제점, 주요 이용 서비스 종류 등을 알아보았으며, 한복희(1995)는 국내 네트워크의 현황과 특성을 알아보고, 사서들의 인터넷 이용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시행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유, 이용법 습득 방법, 이용하는 기능 및 그 잇점과 장애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김창근(1993)은 ADONIS라는 학술잡지의 원문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소개하였다. 주로 생의학, 생화학, 생체공학 등의 분야의 학술잡지들을 다루어 사용 분야가 제한되어있는데, 이러한 원문 데이터베이스는 효용성과 편의성은 좋지만, 시스템 시설 및 사용료가 비싸고, 잡지 수 등이 한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제한점이라 하였다.

한편김진균(1996)은미국의 RLG (Research Libraries Group)에서 원문 전송 방법으로 개발되어 대학도서관들 사이에 점차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Ariel System을 상세히 살펴보고 국내의 이용 현황도 제시하고 있다. 즉 Scan된 자료를 PC로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고 타 도서관에서도 PC로 받아 Laser 프린터로 바로 인쇄해 볼 수 있는 이 시스템은 해상도도 FAX보다 훨씬 더 좋으며, 매우 빠른 전송속도를 보여준다. 또한 제본된 도서나 잡지를 스캐너를 이용해 바로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는 편리함도 도서관들이 이용

하기에는 큰 장점이다(Jackson, 1993, 17). 이 Ariel System을 도서관들이 원문 전송을 위해 좋은 도구로 쓸 수 있음을 여러개의 외국 논문들 역시 보여주고 있다. Jackson(1992, 1993), Bennett and Palmer(1994), 및 Friend(1994)의 논문들은 모두 Ariel System에 대해 소개하고, 활용 방법과 실제 활용 경험 등을 소개하였고, 그 장점을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Brandreth and Mackeigan(1994)은 Ariel System의 활용이, 많은 양의 문헌 전송에는 문제점이 있음을 밝히고, Canada에서 새롭게 개발된 전자문헌 전송 시스템(EDDS)에 대해 기술하였다.

한편 Everett(1993)와 Ward(1996)는 원문 제공 수단으로서의 상업용 원문 Database들에 대해 검토해 보았는데, 특히 Everett는 실제 요구와 원문 Database의 충족 정도를 연구한 결과 상업용 원문 Database들이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즉, 이는 도서관 및 정보센터들 사이의 정보 및 자료 교환과 원문 전송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견해는 또한 Pessah and Venturella(1995)에 의해서도 제시되었다.

또 상호대차 방법과 상업적인 원문 제공 서비스 기관 이용의 효율성에 관한 비교도 이루어졌다(Pederson & Gregory, 1994; Kurosman & Durniak, 1994). 이 두 논문들은 모두 상호대차가 가격면에서 우월하며, 원문을 제공받기까지의 시

간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며 상호대차가 도서관에 더 효율적이라고 결론지었다. 다만, 급하게 필요한 자료나 고급 해상도를 원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상업적인 원문 제공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 3.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먼저 앞에 기술한 연구 목적에 의거,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이 설문지를 2사람의 특수 도서관 사서들에게 검토하도록 하여 모호한 질문 등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질문지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국내 특수 도서관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 도서관 통계 1994·1995」(1996)를 이용하였다. 1997년 3월 초, 이에 수록된 전문·특수 도서관 중 1 사람 이상의 사서가 근무하는 전국의 328개 도서관에, 설문지들을 반송봉투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4월 초 설문지가 회수되지 않은 도서관들에 설문지를 재 발송했는데, 전체 설문지 328매 중 2차례의 설문지 발송에 의해 회수된 설문지는 153매로 회수율은 46.6%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많은 답이 누락된 1매를 제외한 152매가 분석되었다. 응답결과는 SPSSWI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분석 결과

##### 4. 1 응답 도서관의 배경

설문지에 응답한 152개 도서관들을 모 기관의 업종별로 분석해보면, 병원이 43곳(28.3%), 공공기관이 37곳(24.3%), 연구소가 35곳(23%), 금융기관이 12곳(7.9%)이었고, 기타 제조업, 법률 기관, 엔지니어링 업종, 교육기관 등이 25곳(16.5%)이었다<표 1 참조>.

<표 1> 도서관이 속한 모기관

모기관 종류	수치	%
병원	43	28.3
공공기관	37	24.3
연구소	35	23.0
금융기관	12	7.9
기타(제조업 등)	25	16.5
계	152	100

이들을 장서 크기별로 보면 5,000권 이하를 소장한 도서관이 34곳(22.4%), 20,000권 초과~50,000권 소장 도서관이 가장 많은 45곳(29.6%), 그리고 50,000권 초과 보유기관도 9곳(5.9%)이었다<표 2 참조>.

<표 2> 장서 수(단행본)

장서수(단행본)	수치	%
5,000권 이하	34	22.4
5,000권 초과~10,000권	24	15.8
10,000권 초과~20,000권	37	24.3
20,000권 초과~50,000권	45	29.6
50,000권 초과	9	5.9
무응답	3	2.0
계	152	100.0

<표 3> 정기간행물 수

정기간행물 수	수치	%
50종 이하	25	16.4
50종 초과~100종	25	16.4
100종 초과~200종	26	17.1
200종 초과~300종	24	15.8
300종 초과~500종	25	16.4
500종 초과	26	17.1
무응답	1	0.7
계	152	100.0

정기간행물 구독 숫자를 보면 100종 초과~200종 구독처와 500종 초과 구독처가 각각 26곳(17.1%)이었고, 기타 상세한 것은 <표 3>에 보여진다. 도서관 직원 수는 1~2명이 가장 많아 88곳(57.9%)으로 나타났고, 3~5명인 곳이 42곳(27.6%)이며, 6~10명인 곳이 15곳(9.9%), 11명 이상인 곳도 7곳(4.6%)이나 되었다<표 4 참조>.

〈표 4〉 도서관 직원 수

도서관 직원 수	수치	%
1~2명	88	57.9
3~5명	42	27.6
6~10명	15	9.9
11명 이상	7	4.6
계	152	100.0

〈표 5〉 도서관 평균 이용자 수

평균이용자 수	수치	%
10명 이하	19	12.5
10명 초과 ~ 30명	76	50.0
30명 초과 ~ 50명	30	19.7
50명 초과 ~ 100명	17	11.2
100명 초과	9	5.9
무응답	1	0.7
계	152	100.0

〈표 6〉 도서관 년 예산

년예산	수치	%
2,000만원 이하	50	32.9
2,000만원 초과~5,000만원	28	18.4
5,000만원 초과	70	46.1
무응답	4	2.6
계	152	100.0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10명 초과~30

명이 76곳(50%)으로 가장 많았다. 100명 초과인 곳도 9곳(5.9%)이었다(표 5 참조). 년 예산은(인건비 제외) 2,000만원 이하가 50곳(32.9%)이었고, 5,000만원 초과인 곳이 가장 많은 70곳(46.1%)이었다(표 6 참조).

#### 4. 2 원문제공 서비스 현황

152곳 가운데에서 원문제공 서비스를 실시하는 곳은 80곳으로 전체의 52.6%였고, 실시하지 않는 곳이 72곳(47.4%)이었다.  $\chi^2$  (Chi-Square)검증을 해보았더니, 예산 크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0.00001$ ).<sup>1)</sup>

즉, 예산이 많은 곳에서는 원문 제공서비스를 하는 곳이 많은 반면,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서비스를 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표 7 참조).

〈표 7〉 예산별 원문제공 서비스

예산 \ 서비스	원문 제공함	원문제공 안함
2,000만원 이하	13(16.7%)	37(52.9%)
2,000만원 초과~5,000만원	15(19.2%)	13(18.6%)
5,000만원 초과	50(64.1%)	20(28.6%)
계	78(100%)	70(100%)

$\chi^2 = 24.15815$   $df=2$ ,  $p=0.00001$  (도서관 년예산 무응답: 4)

원문제공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는 곳은 그 이유로 직원/인력의 여유가 없어서를

1)  $\chi^2$  test는  $df \geq 1$ 일 때 한 셀이라도 셀의 기대 빈도가 1 이하이면 test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Siegel, 1988, p.123), 무응답은 제외하고 test를 시행하였다.



가장 많이 꼽았으며(39곳, 54.2%), 그 외에도 중복응답을 감안하여 관계기관과 연계할 기술적 여건이 부족하다는 20곳(27.8%)이, 요구가 적다는 것을 18곳(25%)이 응답하였다.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답도 9곳(12.5%)에서 응답하였다(표 8).

〈표 8〉 원문제공서비스를 하지않는 이유

원문제공서비스를 하지않는 이유	수치	%
직원/인력의 여유가 없다.	39	54.2
비용이 부담스럽다.	9	12.5
요구가 적다.	18	25.0
관련기관과 연계할 기술적 여건이 안된다.	20	27.8
기타	3	4.2
계	89/72	123.7

원문 제공 서비스를 위해 이용하는 기관으로는, 서비스를 하는 80개 도서관 중 28곳(35%)이 KINITI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순서 1위로 지적하였고, BLDSO도 원문제공 서비스를 위해서 21곳(26.3%)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하였다.

중복 응답을 감안하면 원문 제공 서비스를 위해 BLDSO나 BLDSO에 직접 접속하는 ARTEL을 이용하는 도서관이 56개곳, 70%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47.5%인 38곳이 KINITI를 이용하고, 의학도서관 협의회 의 상호대차를 18곳(22.5%)이 이용하며, 사회과학도서관 이용자는 응답자의 6.3%인 5곳이, DIAL-ORDER는 8곳(10%)이 이용한다고 응답

하였다(표 9 참조).

〈표 9〉 원문제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방법

원문제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수치	%
KINITI	38	47.5
DIAL-ORDER	8	10.0
BLDSO/ARTEL	56	70.1
사회과학도서관	5	6.3
한국 의학도서관 협의회	18	22.5
기타	29	36.3
계	154/80	192.6

원문제공을 위해 이용하는 서비스를 통해 원문을 제공받는데 걸리는 평균시간은 1일~50일 이상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는데, KINITI가 평균 1주 이상~2주일 정도가 걸린다고 11곳에서 답하였고, 18곳에서 보름 이상 걸린다고 답하였으며, 7곳에서 1주 이하 걸린다고 답하였다. BLDSO는 평균 1주 이상~2주일 정도가 걸린다고 23곳에서 답하였으며, 18곳에서 보름 이상이 걸린다고 답하였다. 평균 1주 이하가 걸린다고 한 곳들은 주로 FAX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FAX 서비스와 일반 우편 서비스 간의 차이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아, KINITI와 BLDSO의 서비스를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원문제공 서비스를 통해 원문을 제공받는데 드는 평균 비용은 1,000원~50,000원 까지 다양했는데, KINITI에 대해서는, 28

〈표 10〉 원문 서비스 기관별 평균 서비스 비용과 원문 입수까지 기간

서비스기관	평균 서비스 비용			원문 입수까지 기간		
	10,000원 미만	10,000원	10,000원 초과 ~50,000원	1주이하	8~14일	보름이상
KINITI	24	4	3	7	11	18
BLDSC/ARTEL			3	1	2	3
DIAL-ORDER	5	18	15	1	23	18

\* 응답한 기관만 포함.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곳이 10,000원 혹은 그 미만이라고 하였고, 3곳은 10,000원을 초과해 50,000원 까지라고 한 반면, BLDSC에 대해서는 23곳이 10,000원 혹은 그 미만이라고 하였으며, 5곳이 10,000원을 초과한다고 하였다. 즉, KINITI와 BLDSC 이용시 대부분이 건당 평균 10,000원 이하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DIAL-ORDER를 이용하는 기관은 응답한 3곳 모두 10,000원을 초과한다고 하였다.

한편, 도서관과 이용자의 원문 제공 서비스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이용자 부담 10% 미만, 즉, 도서관에서 거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곳이 28곳으로 응답기관 76곳 중 36.8%를 차지했고, 이용자가 70% 이상, 혹은 100%를 부담한다고 한 곳이 43곳으로 56.6%를 차지했다.

#### 4. 3 상호대차 서비스 현황

상호대차에 참여하고 있는 곳은 87곳으로 57.2%가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상호대차에 참여하지 않는 곳은 참여하지 않

는 이유로 가입할 마땅한 기구가 없음은 22곳(42.3%)이 지적하였고(중복응답 포함), 시간/직원의 여유가 없다고 21곳(응답한 52곳의 40.4%)이 지적하였으며, 그 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을 14곳(26.9%)이 지적하였다(표 11).

〈표 11〉 상호대차에 참여하지않는 이유

상호대차에 참여하지않는 이유	수치	%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14	26.9
가입할 기구가 마땅하지 않음	22	42.3
시간/직원의 여유가 없음	21	40.4
기타	2	3.8
계	59/52	113.4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도서관의 모기관 종류별로 분석해보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14개 기관 중 7곳이 공공기관의 도서관이고, 금융기관 1곳, 연구소 2곳, 기타 4곳 등이었다. 가입할 마땅한 기구가 없다고 한 곳은 공공 기관 8곳, 연구소 4곳, 금융기관 3곳 등이었다. 참여하고

있는 상호대차 시스템으로는 한국 의학 도서관 협의회가 42곳, 과학기술 정보관리 협의회가 9곳, 사회과학 정보자료 협의회가 3곳으로 나타났다. 그외에 전국 은행연합회의 협력기관을 이용하는 기관도 2곳이 있었다.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의 상호대차 이용빈도는 주 당 20건을 초과하는 곳이 전체 87곳 중 32.2%인 28곳이었고, 주 당 1건 미만은 27곳(31.0%)이었으며, 주 당 11~20건이 11곳(12.6%) 등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표 12> 상호대차에 참여하는 도서관의 이용빈도

도서관의 이용빈도	수치	%
주당 1건 미만	27	31.0
주당 2 ~ 5건	9	10.4
주당 6 ~ 10건	6	6.9
주당 11 ~ 20건	11	12.6
주당 20건 초과	28	32.2
무응답	6	6.9
계	87	100.0

상호대차시 원문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복사로, 87곳 중 44.8%(39곳)가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하였고, FAX가 26.4%(23곳), 인편과 우편이 각각 12곳과 8곳으로 13.8%와 9.2%로 나타났다. 총괄해 보면 FAX와 복사를 각각 67곳과 61곳에서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3 참조>.

<표 13> 원문을 제공받는 방법

원문을 제공받는 방법	수치	%
FAX	67	77.0
복사	61	70.1
인편	27	31.0
우편대출	27	31.0
기타	2	2.3
무응답	2	2.3
계	186/87	213.7

사용신청 방법으로는 FAX와 전화가 각각 87곳 중 58곳(66.7%), 48곳(55.2%)을 기록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우편 대출도 27곳(31.0%)이 이용한다고 하였다.

기타 14건(16.1%)에는 인편을 이용하거나, 이용자가 직접 가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표 14 참조>.

<표 14> 상호대차 사용 신청방법

상호대차 사용 신청 방법	수치	%
FAX	58	66.7
전화	48	55.2
E-mail	6	6.9
우편	27	31.0
기타	14	16.1
계	153/87	175.9

표준 신청서가 있다고 답한 곳은 62곳으로 참여기관의 75.6%가 표준 신청서로

신청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병원이 39곳으로 이들은 모두 한국 의학 도서관 협의회에 속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구소가 15곳, 공공기관이 4곳으로 나타났다.

상호대차에 참여하는 타 기관의 장서에 대해 파악하는 방법은 학술잡지 목록의 이용이 51곳으로 참여기관 87곳의 58.6%가 이용하며(중복응답 가능), 종합목록은 34곳(39.1%), 또 컴퓨터 탐색도 30곳(34.5%)이 이용한다고 하였다<표 15 참조>.

<표 15> 타 기관의 장서를 파악하는 방법

타 기관의 장서 파악 방법	수치	%
컴퓨터 탐색	30	34.5
종합목록	34	39.1
학술잡지 목록	51	58.6
기타	9	10.3
무응답	4	4.6
계	128/87	147.1

#### 4. 4 정보 기술의 이용

도서관/자료실에서 원문제공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종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정도를 파악해 보았다. 앞에서 연구의 제한점에서도 밝혔듯이 이 문항들은 무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결과 분석을 위해 각 질문에 응답한 기관들만으로 비율 등을 알아 보았다. 표 16은 이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자관의 온라인 목록을 활용하고 있는

곳은 61곳으로, 무응답 51곳을 제외하고, 응답한 101곳 중 60.4%였고, 이용하지 않는 곳은 29곳(28.7%)이었으며, 11곳(10.9%)은 1년 내에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CD-ROM 형태의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곳은 82곳(74.5%)이며, 22곳은 사용하지 않고, 6곳은 1년 내의 활용 계획을 갖고 있었다. DIALOG 등 온라인 상용 데이터베이스는 38곳에서 활용하여, 응답한 85곳 중 44.7%로 나타났고, FAX는 71곳이 이용해 응답자 99곳의 71.7%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관련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는 KINITI-IR을 사용하는 곳이 29곳이었으며, PC통신은 84곳(78.5%)에서 이용하였고, Internet은 이용하는 곳이 77곳이었다.

타 도서관 온라인 목록은 37곳이(44.6%) 이용하였으며, E-mail 은 62곳(67.4%)에서 이용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예산과 정보기술 이용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chi^2$ 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다<표 17 참조>.

예산이 5,000만원 초과인 53곳 중 38곳(71.7%)이 자관 온라인 목록을 활용하며,

2,000만원 이하인 30곳 중엔 14곳이 온라인 목록을 이용함을 보여 예산과 온라인 목록 이용이 유의도 5% 수준에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hi^2=6.43051$  df=2, p=.04). 상용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예산이 5,000만원 초과인 곳 중 58.7%인 27곳에서 이용하는 반면 2,000만원 이하인 곳 중 20%만 이용하여, 유의도 1% 수준에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chi$

〈표 16〉 정보 검색이나 원문 제공에 활용하는 정보 기술

활용하는 정보기술	응답문항	수치	%
자관의 온라인 목록	예	61	60.4
	아니오	29	28.7
	1년 내 계획	11	10.9
CD-ROM 형태의 서지 데이터베이스	예	82	74.5
	아니오	22	20.0
	1년 내 계획	6	5.5
상용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DIALOG 등)	예	38	44.7
	아니오	43	50.6
	1년 내 계획	4	4.7
원문 제공에의 FAX 활용	예	71	71.7
	아니오	27	27.3
	1년 내 계획	1	1.0
KINIT-IR	예	29	35.8
	아니오	49	60.5
	1년 내 계획	3	3.7
PC통신	예	84	78.5
	아니오	18	16.8
	1년 내 계획	5	4.7
인터넷	예	77	74.0
	아니오	19	18.3
	1년 내 계획	8	7.7
타 도서관 온라인목록	예	37	44.6
	아니오	45	54.2
	1년 내 계획	1	1.2
E-Mail	예	62	67.4
	아니오	26	28.3
	1년 내 계획	3	3.3

〈표 17〉 예산별 정보 기술 활용도

정보 기술 종류	이용 여부	예산			$\chi^2$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자관 온라인 목록	예	14(46.7%)	8(47.1%)	38(71.7%)	$\chi^2 = 6.43051$ df=2 p=.04
	아니오 또는 계획중	16(53.3%)	9(52.9%)	15(28.3%)	
상용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예	5(20.0%)	5(38.5%)	27(58.7%)	$\chi^2 = 10.03536$ df=2 p=.007
	아니오 또는 계획중	20(80.0%)	8(61.5%)	19(41.3%)	
Internet	예	16(53.3%)	12(66.7%)	48(87.3%)	$\chi^2 = 22.20055$ df=2 p=.00002
	아니오 또는 계획중	14(46.7%)	6(33.3%)	7(12.7%)	
E-mail	예	10(37.0%)	7(53.8%)	44(88.0%)	$\chi^2 = 22.20055$ df=2 p=.00002
	아니오 또는 계획중	17(63.0%)	6(46.2%)	6(12.0%)	

$\chi^2 = 10.03536$  df=2, p=.007). 인터넷은 5,000만원 초과 예산을 가진 곳 중 87.3%가 활용하나 2,000만원 이하는 53.3%만 이용하여 유의도 1% 수준에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chi^2 = 12.13196$  df=2, p=.002). 또 E-mail 이용자 중 5,000만원 예산을 가진 곳은 88%가, 2,000만원 이하는 37%만 이용함을 보여( $\chi^2 = 22.20055$  df=2, p=.00002), 유의도 1%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 기술 활용에 걸림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복 응답을 감안해 전체응답자 152곳 중 재정부족을 75곳에서 지적하였고(49.3%), 그 다음이 서비스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60곳(39.5%)이 지적했으며, 훈련부족은 31.6%인 48곳의 응답을 받았으며, 하드웨어(기기) 부족은

43곳(28.3%)이 지적하였다. 전산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CD-ROM 등 소프트웨어 부족은 31곳(20.4%)이 꼽았고 시간부족을 24곳(15.8%)이 지적했다(표 18).

〈표 18〉 정보 기술 활용에 걸림들이 되는것

정보매체 활용에 걸림들이 되는것	수치	%
재정부족	75	49.3
서비스에 관한 정보부족	60	39.5
훈련부족	48	31.6
하드웨어(기기) 부족	43	28.3
소프트웨어 부족	31	20.4
시간부족	24	15.8
흥미부족	6	6.9
무응답	26	17.1
계	287/152	227.7

한편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해달라는 질문에는 신속한 처리, Online 종합목록의 작성 및 쉬운 접근, 네트워크를 통한 접속 및 원문전송, 공동 전산화의 시행으로 타 도서관과의 쉬운 연결,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과의 네트워크, 국가의 재정적·정책적 지원 및 도서관 공동협의체 구성에 의한 조직적 접근, 인적·재정적 뒷받침, 주제별 전문사서 양성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인터넷이나 국가 네트워크 등을 통한 쉬운 접근과 원문전송, 종합목록의 구성 및 쉬운 활용 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어떤 네트워크에서나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국가의 재정적·기술적·인적·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응답자들의 집약된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도서관 협력사업의 장애가 되는 요소로 도서관 정보관리 편람에서는 서지정보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었다. 여기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의 외국 학술잡지 종합목록 등이 있으나 전국적인 규모로 서지정보의 포괄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도서관 협력구축의 하부구조가 약한 편이라고 하고, 전국 규모의 종합목록 없이는 상호대차업무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국가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였다(도서관 정보관리편람, 1994, 167).

Jackson(1995)은 미국내 상호대차시스템의 재설계를 위해 도서관에서 본 상호대차 제도의 문제점들을 살펴 보았는데,

자원공유 계약의 문제점과 다양성, 이용자 기대 수준의 증가, 상호 연결되지 못한(uninteractive) 상호대차 시스템, 상호대차 요금 체계의 다양성, 기술적 표준의 결핍, 재정적, 인적, 설비적 자원의 불공평성 등을 들었다. 앞으로의 이상적인 상호대차나 원문 제공 시스템의 모델은 '즉각적이고 무료'인 서비스라고 기술했는데, 적절한 시간내의 처리와 제공, 효율적인 무료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에 기반을 둔 전자 문헌 제공 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되었다.

한편, 새로운 정보기술에 관한 세미나, 교육 등에의 참석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88곳(응답 125곳 중 70.4%)에서 1년에 2~3회 정도 참가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격월 간격 또는 월2~3회까지 참석하는 곳이 8곳(6.4%)이었고, 기타가 29곳(23.2%)이었다. 예산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하였으나, 응답이 한 가지에 치우쳐 있어서 통계상 의미있는 처리를 할 수가 없었다.

평소 원문제공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기술하도록 요청한 질문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비싸다는(예산, 재정 문제 포함) 의견이 32곳에서 제기되었고, 신속성이 없고, 원문을 제공받는데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다는 의견이 30곳에서 지적되었으며, 타 도서관의 소장사항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종합목록등이 부족하거나 부정확하다는 의견도 많았다(20곳). 그 외에 인력/시간 부족을 들고(15곳), 또 소속기관의 정책적 뒷받침이나 인식 부족

〈표 19〉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첫째로 중요하다고 선택		복수 선택	
	수치	%	수치	%
온라인화	40	26.3	105	69.1
네트워크 활용	40	26.3	101	66.4
상호대차	13	8.6	88	57.9
서지 DB활용	8	5.3	82	53.9
공동목록	17	11.2	79	52.0
공동수서	6	3.9	67	44.1
무응답	28	18.4	28	18.4
계	152	100.0	550/152	361.8

도 5곳에서 문제점으로 꼽았다.

〈표 19〉는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응답자들이 지적한 것을 보여준다.

네트워크의 활용과 온라인화를 전체 응답자 중 각각 40곳(26.3%)이 첫째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 공동목록과 상호대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곳도 각각 17곳(11.2%)과 13곳(8.6%)이었다. 중복응답을 감안하면 전체응답자 중 69.1%가 온라인화를, 66.4%가 네트워크 활용을, 57.9%가 상호대차를, 서지 DB활용을 53.9%가 지적했고 공동목록도 52%가, 공동 수서를 44.1%가 지적하였다.

## 5. 결론 및 제언

연구 결과 발견된 사항들을 분석하고 함축된 의미를 찾아보고, 앞으로 지향되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원문 제공 기관 활용에 있어서, 원문 제공 서비스를 시행하는 도서관 중 BLDSC를 70.1%가, KINITI를 47.5%가 이용하고 있었다. 원문을 제공받기까지의 평균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는 BLDSC와 KINITI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이 BLDSC로 나타난 것은, 국내에서 도서관 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소장 자료가 많아 원하는 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BLDSC가 비용과 시간 면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KINITI 보다 더 많이 이용된다고 짐작할 수 있다. 특수 도서관들의 요구가 전문적이고 특수한 것이라고 해도,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향상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OCLC와 같은 서지 네트워크 활용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우리 나라 현실에서, 상호대차에 참여하고 있는 곳이 87곳으로 응답



한 전체 도서관의 57.2%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설문지에 응답한 도서관이 상호대차 등의 서비스에 적극적인 도서관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의학도서관 협의회가 가장 두드러진 협력체로 나타났으며, 과학기술 정보관리협의회와 사회과학 정보자료 협의회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상호대차 이용 기관 중 주 당 20건 초과 이용한다는 곳이 32.2%였고, 주 당 11~20건이 12.6%로 나타나는 등 열악한 현실에서도 도서관들이 상호협력 체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보아 구심체적인 네트워크가 활용되면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상호대차의 사용 신청 방법으로는 FAX와 전화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우편도 많이 이용한다고 하였다. 아직 E-mail은 도서관 간 자료 신청에 활성화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 E-mail을 활용하는 곳이 응답한 곳 중 67.4%임을 고려할 때 이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원문을 제공받는 방법으로는 FAX와 복사를 가장 많이 이용함을 알 수 있었다. 도서관들 중 인터넷을 이용하는 곳이 응답 기관의 74%에 이르므로, 미국에서 많이 이용되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Ariel과 같은 시스템의 사용을 적극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원문 제공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비용, 예산 문제, 신속성이 없고, 원문을 제공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타 도서관의 소장사항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과 인력/시간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으로는 네트워크의 활용과 온라인화, 공동목록과 상호대차를 많이 꼽았다. 즉, 각 기관의 정보 서비스에 좀 더 많은 인적, 재정적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으며, 네트워크의 활용으로 소장 정보를 서로 알고, 온라인으로 자료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상호대차도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다섯째, 결과를 보면, 약 45%~75%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E-mail 등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서 특수 도서관이 정보매체 활용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네트워크를 통한 원문 제공 서비스를 시행 할 여건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E-mail과 PC통신을 응답자의 75% 정도가 실제 활용하고 있음을 볼 때, 어떤 구심체를 담당할 네트워크만 연결되면, 상호대차나 원문제공 서비스를 위한 기초가 이미 마련되어 졌다고 생각된다.

한편 정보 기술의 이용은 예산의 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예산에 여유가 있어야 정보기술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도 예산, 재정 문제가 당면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듯이,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만 효율적인 정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KINITI가 원문 제공 서비스에 있어 중심점이 되도록 한다. BLDSCL처럼 명실상부하게 국가 정보 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 더 많은 정기간행물을 확충하고, 연구 단지내의 각 주요 분야 연구소와 연계되어서 신청기관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INITI의 서비스는 요금을 징수하는 서비스일 수 밖에 없으므로 최저의 비용으로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도서관들에 의해 비교적 많이 이용되고 있는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도서관 상호간에 또 원문 정보 서비스 센터들과 도서관들 간에 상호대나 원문 제공이 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도서관 정보 전산망(KOLIS-NET: Korean Library Information System Network)이 국립 중앙도서관의 국가 문헌정보 유통체제 구축의 기반을 확립하는 일환으로 구축되고 있는데(유사라, 1997), 이 네트워크가 국립, 공공 및 대학과 특수 도서관을 포함시킨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첨단 학술정보 센터(KRIC: Kore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의 설립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문 학술정보 센터(RISS: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권기원 외, 1997; 김용성, 1997)도 종합 목록 서비스, 전문 학술 정보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특수도서관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인터넷이나 PC 통신을 통해 각 도서관들의 목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원문 신청 및 제공이 용이하게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 도서관은 열린 통로를 개설하여 어느 도서관의 요구라도 E-mail이나 fax 등을 통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들이 스스로 적극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며, 실비만을 부과하도록 한다면, 도서관들이 이용자들에게 재정적으로 큰 부담없이 질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타 도서관 장서 정보에의 쉬운 접근과 쉬운 원문 신청, 싸고 빠르고 쉬운 원문 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정보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이 많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도서관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숙희. 1995. "도서관 참고 봉사에 있어서 Internet 정보 자원 활용," 도서관. 50(2): 29-53.
- 권기원, 이은철, 고영만. 1997. "전문학술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연구," 제7회 4개학회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국가 학술정보 유통체제의 확립 방안 (1997. 6. 26 - 28): 57-81.
- 금교석. 1995. "Internet 접속과 활용에 관한 연구 : 국회 시스템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보. 32(2): 20-43.
- 김선화. 1995. "도서관 전용 Internet 탐색도구에 관한 고찰," 도서관문화. 36(6): 257-268.
- 김용성. 1997. "첨단 학술정보센터 현황 및 발전 계획," 제7회 4개학회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국가 학술정보 유통체제의 확립 방안 (1997. 6. 26 - 28): 41-55.
- 김진균. 1996. "대학도서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문 전송방법에 관한 고찰: Ariel System을 중심으로," 도서관문화. 37(4): 242-267.
- 김창근. 1993. "초대형 원문정보데이터베이스 ADONIS," 도서관문화. 34(2): 71-89.
- 도서관 정보관리 편람. 1994.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 정보학 용어 사전. 1983.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안현주. 1995. "Internet을 통한 의회정보 서비스에 관한 고찰," 국회도서관보 32(2): 5-19.
- 유사라. 1996. "국내외 주요 학술연구망과 도서관 정보망," 정보화 사회와 도서관 정보네트워크. 서울: 나남출판. pp. 519-571.
- 이상렬, 이은철. 1995. "정보봉사 기관에서 인터넷(Internet)을 이용한 효과적인 정보봉사에 관한 연구," 제2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 73-76.
- 이승하. 1989. "한국 의학도서관 해외 상호대차 실태," 한국의학도서관. 16(1-2): 23-24.
- 이영자. 1995. "정보기술이 자원 공유에 미치는 영향," 도서관학논집. 제22집: 205-244.
- 전명숙. 1986. "상호대차 제도의 이론과 응용," 도서관학. 13집: 39-72.
- 정연호, 김성혁. 1994.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도서관 상호대차에 관한 연구," 1994년도 한국정보관리학회 전국논문대회 (제1회) 논문집. pp. 67-70.
- 정영미. 1995. "Internet 학술정보자원의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2(1): 19-43.
- 정은희. 1995. "Internet을 이용한 정보검

- 색 봉사,” 국회도서관보, 23(8): 44-54.
- 조수현. 1989. “국내 상호대차의 실태와 문제점 진단” 한국의학도서관, 16(1-2) :25-28.
- 한국도서관통계 1994·1995, 1996. 서울: 한국 도서관협회.
- 한복희. 1995. “정보봉사의 증진을 위한 사서들의 Network 이용 연구,” 도서관학논집, 제 23집: 1-27.
- 홍재현, 김병주. 1995. “도서관에서의 Internet 이용과 과제.” 제2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 77-80.
- Bennett, Valerie M. & Eileen M. Palmer. 1994. “Electronic Document Delivery using Internet,”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82(2): 163-167.
- Brandreth, Michael & Clare MacKeigan. 1994. “Electronic Document Delivery- Towards the Virtual Library,” Interlending & Document Supply, 22(1): 15-19.
- Cornish, Graham P. 1993. “The Changing Role of Special Libraries in Document Supply,” INSPEL 27: 211-218.
- Everett, David. 1993. “Full-text Online Database and Document Delivery in an Academic Library: Too little, Too late?” Online 17(2): 22-25.
- Friend, Frederick J. 1993. “Document Delivery : A World Solution to a World Problem?” IFLA Journal, 19(4): 1993
- \_\_\_\_\_. 1994. “Electronic Document Delivery through Library Cooperation: A Trial using Super JANET and Future Possibilities,” Interlending & Document Supply, 22(4):17-21.
- Jackson, Mary E. 1992. “Using Ariel, RLG’s Document Transmission System to Improve Document Delivery in the United States.” Interlending & Document Supply, 20(2): 49-52.
- \_\_\_\_\_. 1993. “Document Delivery Over: The Internet” Online 17(2): 14-21.
- \_\_\_\_\_. 1995. “Library to Library: Interlibrary Loan, Document Delivery, and Resource Sharing,” Wilson Library Bulletin, 69(9): 68-69, 113.
- Kurosman, Kathleen & Barbara A. Durniak. 1994. “Document Delivery: A Comparison of Commercial Document Suppliers and Interlibrary Loan

- Servic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55(2): 129-139.
- Pederson, Wayne & David Gregory. 1994. "Interlibrary Loan and Commercial Document Supply : Finding the Right Fit,"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0(6) :263-272.
- Pessah, Roberta & Karen Venturella. 1995. "Document Delivery : St. John's University's Experience with Full-Text Services." *Library Software Review*. 14(4): 212-214.
- Siegel, Sidney & N. John Castellan, Jr. 1988. *Nonparametric Statistic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 Ward, Sandra E. 1996. "Document Delivery : The Perspective of Industrial Information Services" *Interlending & Document Supply*. 24(2): 4-10.